

익산시, 국가예산 최대 반영 '총력'

‘2026년 국가예산 사업 확정 보고회’ 개최… 1조6284억 규모 총 438개 사업 발굴
세종사무소·전북도·중앙부처·국회와 협력해 국가예산 반영 적극 추진 다짐

익산시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12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사업 확정 보고회’를 열고 총 438개 사업의 예산 확보 대응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작년 9월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발굴된 1조6,284억원 규모의 46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구체화했다.

신규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들로 △국가 식품클러스터 2단계 연계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전북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디지털 트윈 활용기반 조성 등이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들에 대한 논리 보완을 통해 예산 반영을 재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



석재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계속사업으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대조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등 392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향후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조감상 세종사무소장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중앙부처·국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익산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처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운영

4~7월까지 12주간 미술 강습 진행… 29일까지 총 30팀 모집

문화도시 익산시가 시민 누구나 예술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1시민 1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시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1시민 1미술’에 참여할 30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1시민 1미술은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미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익산시민으로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가족·동료·지인 등 5~10명과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은 4월부터 7월까지 12주간 강습을 받을 수 있고, 완성된 작품은 오는 9월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개설된 강좌는 △아크릴화 △오일파스텔 △어반스케치 △펜드로잉 등 4개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culturecityiksan.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063-831-792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미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예술을 접할 기회를 확대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시민 1미술’ 프로젝트는 2023년 시작됐으며 20세부터 96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 100팀, 688명이 참여했다. 또한 참여자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작품 발표회를 총 3회 개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군경합동묘지’ 명칭 변경 공모 수상작 선정

총 330건 명칭 접수… ‘군산 호국의 숲’으로 최종 결정

군산시는 군산 군경합동묘지 명칭 변경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군경합동묘지 명칭 변경 공모전의 최종 선정 명칭은 ‘군산 호국의 숲’으로 결정됐다.

이는 군산의 지명을 넣어 지역성을 살리고 ‘호국의 숲’으로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의미와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휴식할 수 있는 쉼터, 힐링의 의미로 제안된 명칭이다.

이번 공모전은 군경합동묘지의 역사성과 상징성, 독창성을 담아야 할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3월 6일까지 진행됐다.

군경합동묘지 명칭 변경 공모를 통해 총 330건의 명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취지에 부합한 명칭 135건을 불채택하고 195건을 채택하였다.

이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건이 1차 선정되어 군산시청,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서 현장 선호도 조사까지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대표, 역사학과 교수, 기자, 시민참여연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모전 명칭 변경 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른 10건을 두고 논의 끝에 선정을 마쳤다.

김현석 복지교육국장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당선작에 대해서 소정의 시상금(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친숙하게 다가가고 경건하게 참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위원회 균형적 운영 위해 연임 제한해야”

불합리한 자치조례 정비 위해… 총 38개 조례 일괄개정 추진

익산시의회는 1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정인의 지속적인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각 위원회별로 위원 연임 횟수에 대한 문구가 달라 해석의 차이가 있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특정인의 지속적인 연임은 시민 참여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균형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등 38개 위원회의 연임 제한을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1분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1분기 3029억 집행 박차…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 기대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1분기 신속집행 목표액 3,029억원 집행을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민수 기획안전국장 주재로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서별 주요 사업의 집행 계획을 공유하고, 집행 부진 사업의 문제점과 신속집행 목표달성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신속집행 대상 예산(기준액)의

35%인 3,029억원 집행을 1분기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부서장을 단장으로 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집행 실적 점검과 부진 부서에 대한 재정점검을 시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속집행 목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절차 신속 추진, 선금·기성금 지급 검토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복지위기 알림 앱’ 시민 대상 홍보 나서

군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위기 알림 앱’ 서비스 가입과 활발한 활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 또는 이웃의 상황을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용이하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사용하려면 우선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거나 QR 부호(코드)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진 첨부 기능 제공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익명 신청 기능도 제공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군산시민 모두 이용 가능하며, 본인 또는 이웃이 현재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앱에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전송된다. 이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에 맞춰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3월 12일부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지원 수량은 승용 30대(일반 27,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등) 3), 고상버스 22대로 총 52대이며, 승용의 경우 1대당 3,450만원, 고상버스의 경우 1대당 최대 3억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각 자동차 영업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산시 기후환경과☎ 063-454-339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